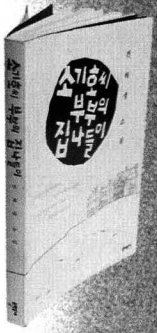


저자와의 만남



피도 눈물도 없이 상처를 감싸는 그만의 울법

# 전혜성



소설가 전해성(35)에게 율법이란 없다. 그의 전작前作 《마요네즈》를 읽은 독자라면, 병중의 남편을 곁에 두고 머릿결을 사수하느라 마요네즈를 바르는 천연덕스런 모성母性에 고개를 절레 흔든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고지순한 모성의 세계가 와해되었을 때의 허탈감은 잠시, 조작된 이미지에 강요당하고 살았다는 성찰에 이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천연덕스런 모성이라고 없으란 법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이 모성의 본령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없는 율법,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믿어온 세계를 까발리는 힘의 근원이다.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자 등단작이기도 한 《마요네즈》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소설집 《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에서도 율법 없는 전해성의 행보는 계속된다.

“첫 작품 《마요네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극과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품의 각색을 직접 맡고 보니 중·단편 쓰는 시간이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실험이라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해 본 결과물이 이번 소설집입니다.”

《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에는 〈형숙유전〉을 비롯해 모두 7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전작 《마요네즈》와 비교해 작품이 주는 충격은 덜할지언정, 불우한 인물들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솜씨는 더욱 원숙해졌다. 인물의 캐릭터 구축에 노련함을 보이고 있음인데, 좌표가 사라진 포스트모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운동권 출신의 형숙(〈형숙유전〉), 부부라는 고리 속에서 아내와 소통할 수 없는 소기호(〈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 언니의 끊임없는 도움요청에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는 시윤(〈가난한 친척〉) 등 이번 소설집은 인물의 캐릭터를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읽는 재미가 각별하다. 슬랩스틱코미디를 보는 듯 인물의 행동은 돌출적이지만, 그것이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탄탄한 서사가 받침하는 까닭이다.

“구조화된 서사 속에서 인물을 남겨두

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줌과 라히리, 덴도 아라타의 소설을 즐겨 읽는 것도 그런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소설을 구상할 때면 서사부터 완벽하게 구축한 뒤 인물을 장치합니다. 인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흠은 없는가 하고 조바심 갖는 걸 보면, 구조에 대한 욕심은 인물 때문인 듯합니다. 문체를 자랑하는 스타일리스의 자질보다 입담을 자랑하는 이야기꾼의 자질이 더 많습니다.”

인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인물을 해석하는 남다른 시선으로 또 옮겨간다. 소설 속에는 대개 열등하거나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보는 전해성의 시선은 다른 데가 있다. 보듬고 다독이는 피붙이의 입장을 버리고, 상처에 덧붙인 한 뒷박의 소금을 뿌리는 형국이다. “쿠키 모양의 호수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 같이 소설의 마지막은 대개 어둡지만, 바투 들여다보면 실낱 같은 희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래 울고 난 사람처럼 몸은 스산하고 떨릴지언정, 마지막 느껴움이 주는 ‘전망 없음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이다.

“상처받고 열등한 사람의 편입니다. 결합과 상처는 사람에게 있어 여백인데, 우리가 숨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여백 때문입니다. 진실에 닿을 수 있는 통로도 그것에 있지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심파적 따뜻함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가짜 안식일 뿐입니다. 인물의 결합과 상처가 종기 같은 것이라면, 세계는 그 뿌리까지 속아내고 말겠다는 날선 집착이 있습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환부를 고통스레 쥐어짜는 순간 진짜 안식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이번 소설집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성의 필요를 진단한다는 데 있다. 시윤, 석화, 영주 등 소설집 전반을 아우르는 대개의 화자가 여성인데, 표제작 〈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를 보아도 화자는 그의 아내 숙용이다. 그들은 허약한 남성에게 철저히 무관심을 표하는가 하면, 남편의 부재에도 전망을 찾는 활기를 갖는다. 남성성

을 비판하고 있지만 페미니즘적 접근이 아니다. 완전한 현대성의 기획이란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애기다.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사회지만 여성적 에너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감성 없이는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남성입니다. 남성 자신들이 벌이는 게임에서 승자는 소수일 뿐인데, 그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머지는 처절한 들러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인들은 교만 아니면 열등뿐,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여성성입니다.”

한편 그는 소설형식에서도 율법 없음을 드러낸다. 구조화된 서사와 입담을 자랑하지만, 지금까지 읽어온 중·단편의 완결된 형식과 사뭇 다른 지점도 발견된다. 문학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방송까지 참여했던 혼성적인 이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핸디캡이자 장점이라고 말한다. 율법이 없으면 도그마도 없다. 새로운 소설에 대한 가능성이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는 이처럼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소설집이다. 인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읽는 일은, 인간상처와 결핍에 대한 지독한 그의 시선을 보는 일은, 여성성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깨닫는 일은 일단 흥미롭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면 진정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서로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더하여 세계 속에서 그렇다고 믿어 왔던 진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의심케 만든다. 눈을 씻고 소설집을 보아도 진리는 없다. 소설의 구조만큼 탄탄하지 않은, 허술한 서사가 재현되는 현실을 인지하면 의심의 증폭은 더욱 커진다. 과연,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전해성의 소설집은 명징한 이 한 가지 철학적 성찰을 독자에게 화두처럼 슬그머니 안겨준다. **김민**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